



3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국힘과 간담회

전주매일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음 11월 28일) 제316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새만금 세계잼버리 빈틈없이 준비해야”

김관영 도지사, 부안 잼버리 현장서 준비상황 점검 도, 잼버리 전 분야 공정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김관영 도지사가 세계 청소년들의 기상이 펼쳐질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반시설 공사를 비롯한 프로그램 발굴 등 다양한 준비상황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김관영 도지사는 20일 2023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김 지사의 이날 현장점검은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대회의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권익현 부안군수, 김경기 전북도의원, 최창행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항복 잼버리 운영팀 이영장, JPT(잼버리 플래닝 팀) 관계자들과 상·하수도, 주차장, 아영장, 대집회장,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직소천 과정활동장 등 잼버리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발굴 등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살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먼저 잼버리 경관숲터와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조성 부지 현장을 방문해 “최근 도의회와 언론에서 우려를 제기했던 기반시설 공정, 폭염, 폭우 및 위생대책 등에 대해 중점

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제기된 우려사항을 말씀해 해소하고 빈틈없는 행사준비를 위해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직소천 영외과정 활동장으로 발굴을 옮겨 “영외활동 과정에서는 자칫 영내활동에서보다 안전사고 우려가 높을 수 있다”며 “조직위가 청소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대책을 세우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서 조직위원회 사무국에 방문해 조직위 총괄기획본부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뒤 “올해 사전점검 성격의 프레젠테이션이 코로나19로 취소됐지만 내년 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특색있는 프로그램 발굴 등 각 분야별로 행사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회 지원을 위한 실국 협력체계를 구축 5개 분야 24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효과가 도내 전역으로 파급·확산 되도록 14개 시군의 문화·체육·관광자원을 활용한 잼버리 콘텐츠를 조직위와 공

동으로 기획·발굴하고 대회 범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와 도민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14개 시·군과 전북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범 부처 중점지원 과제와 전북도 협력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도·시·군간 연계 협력 강화, 잼버리 콘텐츠 고도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계잼버리대회장 부지매립(한국농어촌공사)은 현재, 부지 매립 완료 후 교량 건설 등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준공할 예정이며,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잼버리 대집회장,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도 대회일정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또 최근 제기된 배수문제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시 침수에 대비해 전북도와 조직위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침수현장 조사 및 합동회의를 열어 저지대 성토, 외곽 배수로를 정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새만금과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 한류문화 확산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기자·부안=김석진기자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8개월 여 앞두고 김관영 도지사는 20일,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공사현장 등을 둘러보며 프로그램 발굴 및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하고 있다

전라도 천년사 발간 부정식 잠정 연기

전북도, 논란 있는 역사기술 재검토 후 재추진키로 빠른 시일 내 E-BOOK 열람 · 의견 제시 창구 개설

전북도가 전라도 천년사 발간 부정식을 잠정 연기하고 논란이 있는 역사기술 부분에 대한 재검토와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전북도는 전라권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야별 권위가 있는 집필진 213명을 위촉하고, 21명의 천년사 편찬위원회와 공조를 통해 전라도 천년사 발간을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추진해 왔다.

초고 5만1,470매의 방대한 초고를 수집하고, 시대별 편찬위원의 1차 검수와 2차 전체 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찬 최종요고를 채택하는 등 단계별 발간작업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일부 최종 심의를 진행한 역사기술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재검토 차원에서 사업기간을 재연장해 편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라도 천년사에 대한 기술은 사업 초기부터 기존의 검증된 통설만을 기술하는 것이 용이한 작업일 순 없다고 판단하고 검증에 또 검수를 거듭했다. 특히, 최근 정책과 여론의 중심에 있고 관련 분야에서 새롭게 연구 업적을 쌓고 있는 전문 연구자의 발굴 성과를



전북도가 20일 전라도 천년사 발간 부정식을 잠정 연기하고 논란이 있는 역사기술 부분에 대한 재검토와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라도 천년사 1권 표지. (사진=전북도청 제공)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의욕적으로 3광역 지자체가 합심해 시작한 전라도 천년사 편찬 사업은 전라권 역사기술의 최종결론이 아니고 전라도 역사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 더 검증이 필요한 역사기술도 과감하게 수용해 수록했다.

하지만 발간 마무리 의견수렴 과정에서 역사기술의 근거가 부정당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이에 따라 검증에

검증을 거쳐 심의한 다른 역사기술의 합리적 타당성도 의심되는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3개 시도와 협의해 용단을 결정했다.

부정식 잠정 연기로 전라도 천년사 발간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아날로그 편찬물 제작에 앞서 먼저 전라도 천년사 E-BOOK을 먼저 공개해 최근 새롭게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검증과 검토는 물론, 다른 역사기술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추가하기로 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북연구원 전북학 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전라도 천년사 E-BOOK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구성할 예정이며, 글쓰기와 의견의 제시가 가능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일정기간 의견을 접수하고 제시된 의견은 논란이 있는 해당 집필진을 포함한 편찬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여 검증을 통해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 공식화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전라도 천년사에 대한 공신력이 확보됐다는 시점에 전라도 천년사 부정식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산업기술 교류·협력 방안 논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도내 유관기관과 소통의 장 마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IEIT, 원장 전운종)은 2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라북도 산업기술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유관기관 CEO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 미래차(상용차, 자율주행), 탄소·융복합 소재, 농·건설기계 등 지역 중점산업과 신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도 오택립 미래산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의 산업현황 및 산업육성정책 발표에 이어 자율주행차, 첨단기계, 탄소·농·분야의 국가 프로젝트를 총괄 기획하는 전문가들이 산기평의 주요 지원 사

업 현황과 산업기술 분야별 정부의 주요 투자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북 주 산업의 현안 해결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유관기관들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신산업 발굴 및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R&D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지역간의 산업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북지역의 산업기술 유관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재훈 기자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민과 함께 합니다.

http://council.jeonju.go.kr

